CREATION Truth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NEWSLETTER
Volume 24 Number 11 11 2016

창조과학 선교회 새로운 전임 사역자

Bill Hoesch

창조과학 선교회에 새로운 전임 사역자로 Bill Hoesch가 합류했습니다. University of Colorado–Boulder에서 지질학 학사를 받았으며 미국창조과학연구소(ICR, Institute for Creation Research)에서 지질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Wyoming, Angola, Congo, Kenya 등에서 지질학과 공학 분야의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1984년부터 ICR에서 사역을 하였으며, 이때에 RATE 프로젝트의 연구원로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RATE 프로젝트는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측정법에 대한 연구로써 창조과학자들이 이루었던 최고의 업적 중에 하나로 뽑힙니다.

Bill은 ICR에서 가장 많은 강연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Grand Canyon, Yosemite, Yellowstone, Mount St. Helens, Anza Borrego 등 실제 창조과학탐사를 인도했으며, 실제로 ICR의 tour director로 사역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나 비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과 성경에 대한 많은 글들을 써왔습니다. 그만큼 야외와 실내에서 또한 연구와 전달에 대하여 고루 균형을 갖춘 사역자입니다.

Bill은 1981년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였고, 창조과학을 만난 후 자신의 전공분야인 지질학을 통해서 성경의 증거와 함께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Bill이 창조과학선교회와 함께 사역하는 소감에 대하여 "지난 지구 역사를 통해서 나

The RATE project에 참여한 과학자들, Bill은 윗줄 왼쪽에서 세 번째이며 연구원으로 참여함.

타내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창조과학선교회와 파트너를 이루며 전한다는 생각을 할 때 전율이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성경 말씀을 나누기 원했습니다.

"그 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이사야 12:4)

그동안 김선욱, 김낙경 박사님께서 영어권 2세를 위해 세미나와 창조과학탐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번 Bill의 합류로 2세 사역이 더욱 확장될 것을 기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의 대표되는 프로그램인 창조과학탐사를 영어권 2세들에게 더욱 쉽게 접하게 할 수 있다는 점도 기대됩니다. 많은 교회의 초청을 기대합니다. 또한 Bill을 위한 많은 기도도 부탁 드립니다.

● 기원의 문제와 홍수 지질학, 연대문제 등에 대해 제공하는 Bill의 전문적인 세미나 주제들을 소개합니다.

1. *Six Trade Secrets of Science*
2. *Mount St. Helens: Explosive Evidence for Catastrophe*
3. *Fossil Forensics*
4. *Thousands not Billions: Radioisotope Evidence for a Young Earth*
5. *Sand Injectites and a Young Earth*
6. *Catastrophic Plate Tectonics*
7. *Genetic Entropy: Balancing the Books on Darwinism*
8. *Grand Canyon: "Vulgar Notions of a Universal Flood."*

ACT News

창조과학탐사

성남 금광교회

지난 9월 5-8일 성남 금광교회(담임목사 김영삼)에서 창조과학탐사에 참석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어느 때보다 유신론적 진화론에 대한 위험성을 많이 나누며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사님과 참석자들께서 다음 세대를 이 프로그램에 참석하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과제라는 것을 공감했습니다.

안산 동산교회

지난 9월 9-15일 안산 동산교회(담임목사 김성겸)에서 창조과학탐사에 참석했습니다. 안산 동산교회는 매년 봄, 가을 두 번씩 참석하는데 이번이 아홉 번째 입니다. 이번에도 지난 번과 같이 송촌장로교회(담임목사 박경배)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이번 창조과학탐사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뿐 아니라, 세계관에 대하여 다른 때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동성행위에 대한 과학적, 성경적, 역사적 내용을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금광교회

성광교회

지난 9월 18-23일 성광교회(담임목사 유관재)에서 창조과학탐사에 참석했습니다. 올해 첫 참석입니다. 지난봄에 이재만 선교사가 교회에서 집회를 마친 후 교회에서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성광교회뿐 아니라 여러 교회에서 연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시되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하심을 목격하고 감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순간순간 보여주는 성경의 증거들이 감사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C 채널에서 창조과학탐사를 영상으로 제작하기 위해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산동산교회

성광교회

이랑학교

이랑학교

지난 9월 26일-10월 1일 이랑학교(교장 정용갑 목사)에서 창조과학탐사에 참석했습니다. 이랑학교는 2년에 한 번씩 참석하는데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이랑학교는 창조과학을 필수로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학교에서뿐 아니라 이곳 그랜드 캐니언에 직접 와서 배웠던 증거들을 확인합니다. 시종 진지하고 열심으로 임했습니다. 한국에 이와 같이 확고한 성경적 세계관 하에서 학문을 배우는 학교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창조과학세미나

지난 9월 28일 노휘성 강사는 '어? 성경이 읽어지네' 전문강사들의 요청으로 기원의 문제들에 대한 소그룹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빅뱅, 생명의 기원, 종의 기원, 인류의 기원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진화 스토리의 문제점들을 과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조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창조과학학교

제 21 기 중부 창조과학학교가 순복음 시카고교회(담임목사 김판호)에서 9월 21일에 개강하여 11월 23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하시는 이동용 박사님과 스텝들, 그리고 참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경험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8차 유학생 창조과학탐사 모집

유학생들에게 성경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후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유학생 창조과학탐사가 겨울 방학 기간에 열립니다. 많은 유학생들이 참여 희망하는 강추 프로그램이므로 조속히 마감될 수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문의와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 2017년 1월 2-5일(월-목)
경유지 : LA 출발 - Mojave Desert- Grand Canyon-Bryce Canyon - Zion Canyon - LA 도착
참가 자격 : 미국에 유학중인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인도 : 이재만 선교사(지질학, 과학교육학, 구약학 석사)
참가비 : $50 (후원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10%에 해당하는 금액임)
문의 : Tel. 562-868-1697, hisark@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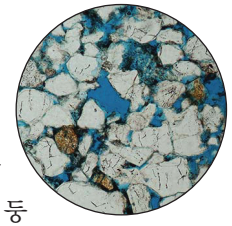
코코니노 사암은 사막에서 형성되었나?

그랜드캐니언 남쪽 절벽에서 북쪽을 바라보면 고원 상부에 선명하게 하얀 띠로 보이는 지층이 바로 코코니노 사암층이다(사진). 두께는 약 100m이며 가까이 다가가면 기존 지층과 경사를 이루며 퇴적된 사층리를 보여준다(사진). 이 코코니노 사암은 '그랜드캐니언 지층이 성경의 홍수 심판으로 형성되었다'는 창조과학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진화론자들이 비판하는 대표적 예이다. 그들이 반박하는 이유는 코코니노 사암은 물 속이 아닌 사막 환경에서 형성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과연 그러한 주장이 실제 관찰과 맞아 떨어지는지 알아보자.

이에 대하여 최근에 시더빌 대학의 지질학 교수인 윗모어에 의해 심도 있게 진행되었다(Dr. John Whitmore, Raymond Strom, Stephen Cheung, and Paul Garner, The Petrology of the Coconino Sandstone (Permian), Arizona, USA, Answers In Genesis, December 10, 2014). 그는 수십 번의 현장 조사와 실험실의 연구를 포함해서 코코니노 사암의 겉보기뿐 아니라 현미경적 조직까지 전례 없는 자세한 연구를 하였다. 그는 또한 이를 강연하며 위의 논문을 요약하기도 했다(Dr. John Whitmore, Coconino Sandstone—The Most Powerful Argument Against the Flood?, Answers In Genesis, November 1, 2015). 아래 글은 윗모어의 글을 정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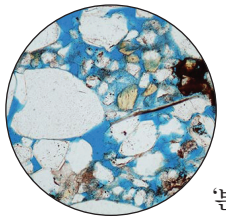
1. 사층리의 각도에 대하여

윗모어 교수 팀은 200개 이상의 사층리 각도를 측정하였고 그 평균은 단지 20도였다. 실제로 사막에서 바람에 의해 쌓인 모래 언덕의 사층리는 훨씬 가파른 32도이다. 이에 대하여 진화론자들은 사층리가 형성된 이후에 짓눌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현미경적 관찰을 통해서 보았을 때 어떤 짓눌린 증거가 관찰되지 않았다. 즉 20도의 각도는 처음 형성되었을 때의 각도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실제로 물 속 대륙붕에서 발생하는 사층리 역시 코코니노 사암의 것과 비슷한 각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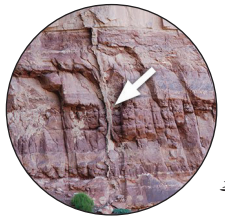
2. 모래 입자들의 마모에 대하여

오늘날 사막에서 모래 입자들은 바람에 날리며 마모되기 때문에 둥근 모양을 보여준다. 날카로운 부분들은 충돌하여 부드러워지기 때문이다. 윗모어 교수 팀은 100개 이상의 샘플을 채취하여 암석분류 현미경을 사용하여 둥근 정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둥글기 정도는 사막에서 보여주는 매우 둥근 정도가 아니라 이 보다 훨씬 각진 상태였다. "0" 값이 가장 각진 것이며 "6"이 가장 둥근 것으로 표기되는데, 사막의 경우 매우 둥근 "5"이상이지만 코코니노 사암은 "2,8"이었다. 이전에 지질학자들이 둥글다고 한 것은 현미경을 통해서가 아닌 맨눈으로 추측한 것이었다.



3. 모래 입자의 분급에 대하여

지질학에서 분급이란 굵은 입자에서 고운 입자로 순서적으로 입자크기의 변화를 보여주는 모습을 말한다. 즉 순서적으로 입자의 크기의 변화를 보여주면 '분급이 좋다'고 말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분급이 불량하다'라고 표현한다. 사막의 경우는 '분급이 좋은' 모습으로 발견된다. 앞에서와 같이 100개 이상의 샘플을 현미경 하에서 조사했을 경우 코코니노 사암은 분급 정도가 '중간에서 불량'에 해당되었다. 특별히 윗모어 교수 팀은 기존에 사용되던 저배율이 아닌 고배율의 현미경을 사용하였다. 이는 훨씬 정밀한 연구였다. 이런 결과 역시도 수중에서 운반과 퇴적이 일어났을 때 예측될 수 있는 것들이었다.



4. 건열(mud cracks)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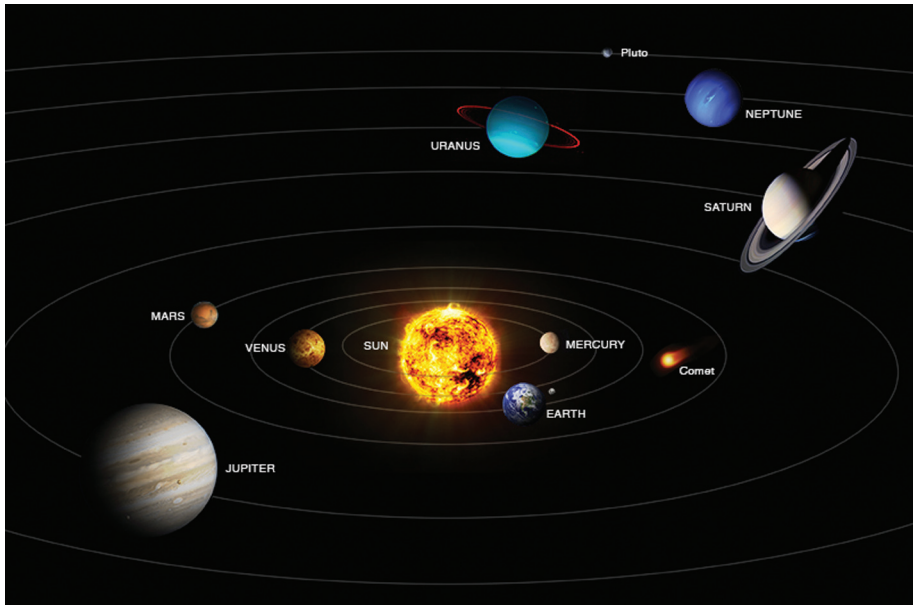
건열이란 젖었던 진흙이 말랐을 경우 논바닥 갈라지듯이 갈라지는 균열을 의미한다. 이는 진흙이 젖었다가 말랐고 그 이후에 시간이 경과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코코니노 사암의 바로 아래 지층은 진흙이 굳어서 된 허밋(Hermit) 층이다. 코코니노 사암과 만나는 허밋 층의 상부에는 이러한 건열이 발견된다. 그러므로 지질학자들은 그동안 이 두 지층 사이에 오랜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허밋 층에서 보여주는 균열은 그 크기가 일반 건열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컸다. 이는 건열이라기 보다는 지진에 의해서 일어난 균열 양상이었다. 이런 해석은 주위의 단층(fault)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이해될 수 있었다. 단층에서 멀어질수록 균열의 크기도 작아지고 결국 사라졌다. 그러므로 이를 건열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었다. 오히려 그랜드 캐니언이 형성된 이후에 일어난 지진에 의해 토양액화 된 코코니노 사암이 균열 속으로 빠르게 흘러갔다는 것이 타당한 해석인 것이다.

5. 발자국 화석에 대하여

코코니노 사암에는 네발 가진 짐승의 발자국 화석들이 발견된다. 파충류 또는 양서류의 것으로 판단되는 것들이다. 이 발자국들은 사막의 모래 언덕에 남겨진 발자국의 특징과는 거리가 멀다. 미세한 부분까지 잘 보여준다. 이에 대하여 가장 많은 현장조사를 한 브랜드는 실험과 함께 몇몇 논문지에 그 결과를 실었다(L. R. Brand and T. Tang, "Fossil Vertebrate Footprints in the Coconino Sandstone (Permian) of Northern Arizona: Evidence for Underwater Origin," Geology 19: 1201–1204, 1991). 그 결과는 물 아래에서 만들어진 발자국의 모양과 가장 일치했다.

윗모어는 그 밖의 여러 다른 예를 통해서도 코코니노 사암이 사막이 아닌 물속에서 형성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최고의 지질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코코니노 사암에 대하여 왜 이토록 잘못 해석하는지 이유도 덧붙였다. "그 이유는 아직도 많은 지질학 교과서들과 참고 도서들이 코코니노 사암이 바람에 의해 쌓였다고 말하며 이에 영향을 받은 지질학자들의 마음에 이미 그런 가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윗모어 교수는 창조과학자를 비판하는 지질학자들이 자신들 주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코코니노 사암에 현장에 나간 적이 없다고 하는 점도 지적하였다.

이재만 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다이내믹 세계는 창조주의 지혜

창조주 하나님은 우주의 넓은 공간을 방대한 에너지로 채우셨다. 우주에는 움직이는 형태의 소위 운동에너지라고 부르는 에너지가 가득하다. 지구는 매일 스스로 360도를 돌면서 태양을 공전한다. 지구가 태양의 궤도를 달리는 원주속도가 초당 30킬로미터이다. 그러니까 지구는 총알 보다도 30배나 빠른 속도로 달려서 365일 만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운동을 계속한다.

지구의 위성인 달은 우리에게 늘 한쪽 얼굴을 보여주며 매월 한 바퀴씩 지구를 돌면서 동시에 지구와 함께 태양의 궤도를 달린다. 이렇게 태양계를 구성하는 8개의 행성과 각각의 위성들은 모두 독특한 속도와 정해진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 태양계가 속해있는 밀키웨이 은하를 포함하여 모든 은하계 또한 우주 공간을 선회하며, 각 은하들 내에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별들도 탄알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달린다. 잠시도 쉼이 없는 운동이다.

물질의 내부는 어떤가? 물질의 입자 세계도 예외는 아니다. 입자물리의 첨단 실험으로부터 밝혀지고 있는 서로 다른 많은 종류의 미립자들과 그들의 기묘한 특성은 미시계 또한 다이내믹 세계임을 보여준다. 잘 알려진 표준입자 모형에서 전자들은 중심에 있는 핵을 선회하고 전자와 전자는 빛의 속도로 에너지를 전달한다. 여기서 빛 또한 공간을 이동하는 전자기파이다. 이렇게 물질의 내

부도 운동에너지로 가득하다.

운동에 대한 지식은 갈릴레오(1564–1642)로부터 크게 진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속도와 가속도(속도 변화율)에 대한 개념을 수학적으로 설명하였고 낙하하는 물체들을 실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그는 태양계 행성들의 궤도 운동을 정확하게 이해하였다. 당시 천동설과 고정된 지구를 믿고 가르쳤던 교회의 권위로부터 그가 큰 저항에 직면하였었다는 기록을 볼 수 있는데, 이 이야기는 종종 교회가 과학에 대하여 적대하고 박해했다고 알려졌었다. 이는 오해이다. 실제로 그는 당시 과학에 대한 입장에 도전했던 것이지 교회가 아니었다. 그의 노력은 당대의 선입견을 깨고 하나님의 창조를 자유롭게 탐구한 것이었다.

다이내믹에 가장 큰 공헌자라면 누구보다도 뉴톤(1642–1727)이다. 그가 45세에 쓴 "원리(Principia)"에 3가지의 운동법칙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1) 관성의 법칙: 외부에서 힘을 가하지 않는 한 정지 상태에 있거나 일정한 운동을 하는 물체는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소위 관성의 법칙이다. 모든 물체는 관성을 가지며 변화에 저항한다.

2) 가속도의 법칙: 어떤 질량(m)인 물체에 힘(F)을 가하면 그 물체는 가속도(a)를 겪게 된다. 이 때 힘은 그 물체의 질량과 가속도의 곱(F= ma)과 같다.

3)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하나의 물체가 또 다른 물체에 힘으로 작용할 때, 두 물체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힘을 겪게 된다. 예로 야구 경기에서 배트와 볼이 맞는 순간에 배트와 볼이 서로 동일한 충격을 받게 된다.

이 세 가지 운동법칙은 오늘날 우주선과 자동차를 비롯하여 모든 설계에 필수로 사용된다. 미시적인 원자세계, 거시적인 우주의 혜성들과 행성들, 그리고 사람들의 일상의 활동에까지 정확하게 예외 없이 적용된다. 운동에 관한한 우연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우연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엄격한 법칙으로 표현되어 자세히 살펴보면 납득이 되고 결국 그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롬1:20).

운동에 관한한 우연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우연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엄격한 법칙으로 표현되어 자세히 살펴보면
납득이 되고 결국 그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은 뉴톤에게 다이내믹한 창조에 대하여 통찰력을 주신 것 같다. 그는 우주에 대하여 복잡한 기어들로 맞물려진 하나의 거대한 시계와 같은 메커니즘으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그에게 우주를 이해하는데 우연은 없었다. 우주의 신비한 현상들은 상호 작용하는 물체와 힘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믿었다. 두 번째 개정판에서 태양계에 대한 그의 고백이 이를 잘 대변해준다.

"태양, 행성들, 그리고 혜성들의 아름다운 시스템은 오로지 지혜자이며 전능자의 배려와 통치로부터 나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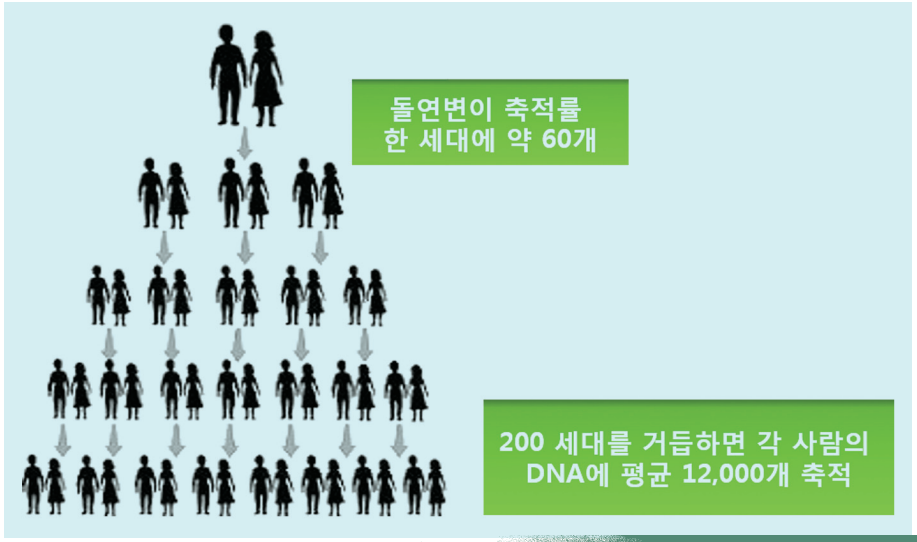
이처럼 뉴톤은 다른 여러 과학의 선구자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과학이 창조주를 겸손히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과학자였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학교는 과학의 반쪽을 교육하고 있다. 현상을 다루지만 왜 그런 법칙들이 존재하는지 그 이유와 의미를 가르치지 않는다. 한 마디로 진리를 찾는 것이 과학의 정의이다. 그런데 오늘의 과학은 자연주의에 제한당하며 전적으로 초월적인 것을 배제하고 데이타를 해석한다. 과학의 정의가 바뀐 것이다. 자연주의 세계관에 부합하는 것만 과학지식으로 수용하도록 변한 것이다. 이 잃어버린 반쪽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오늘의 과학이 더 약해지는 것 아닐까? 만일 실험실에서 창조주를 인정하게 된다면 얼마나 놀라울까? 모든 실험이 더 진지하며 더 의미 있고 더 겸손한 연구가 되지 않겠는가!

결론적으로 물질 세계의 운동법칙에 관한한 가설이나 이론이 필요하지 않다. 사실일 뿐이다. 이 법칙들은 피조물에 대한 깊은 신뢰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 주간 동안에 설정된 만물의 작동의 원리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이내믹은 우리 몸에 혈액 순환, 두뇌활동, 숨쉬기, 근육활동 등 모든 관점에서 생명에 필수며, 우주의 거대한 스케일과 작은 미시계에 존재하는 모든 필요를 아시고 유지하시는 창조주의 지혜의 결과라고 하겠다. 다이내믹한 피조세계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과 자녀를 향한 그의 돌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믿는다.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욥38:33)

이동용 박사
항공기계공학



인간의 돌연변이 시계는 창조를 확증한다

인간의 유전자는 역사에 관한 성경의 솔직한 진술을 확증한다. 돌연변이의 속도를 연구하는 유전학자들은 초시계와 같은 카운트다운을 인간의 DNA에서 발견했다. 인류의 DNA초시계가 아직도 가고 있다는 사실이 인간의 기원의 시점에 대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먼저, 우리는 인간의 기원에 관한 성경의 기록과 진화론적 이야기를 대조할 것이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어떤 역사가 돌연변이 속도에 관한 연구로부터 나온 명백한 결론과 가장 잘 들어맞는지 검토할 수 있다.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진화론적 이야기는 인류가 하나의 정체가 알려지지 않은 원숭이같은 조상으로부터 적어도 240만 년 전에 진화했다고 주장한다. 인류는 그 기간 동안 12만 세대를 경험할 수 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성경은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약 100세대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으로부터 또 약 100세대가 지났음을 고려한다면,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약 200세대가 지난 것이다.

이제 인간의 돌연변이 시계를 살펴 보자. 유전학자들은 가족 구성원 간의 DNA 염기 서열을 직접 비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새로운 도구를 사용하고, 컴퓨터는 각 세대에서 나타나는 모든 DNA의 차이, 혹은 돌연변이의 개수를 센다. 돌연변이는 마치 필사할 때 생기는 오류와 같다. 신-다윈주의자들은 돌연변이를, 인간이 아닌 조상으로부터 인간으로 진화하는 데 필수 열쇠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그들은 돌연변이가 얼마나 빨리 축적되는지 주의 깊게 살핀다.

그 중 가장 포괄적인 연구 보고에서, 유전학자들은 부모와 자식으로 이루어진 78개의 트리오를 포함한 219명의 사람에게서 각각의 새로운 돌연변이의 총계를 냈다. 그들은 각 트리오 당 63.2개의 새로운 돌연변이를 발견했고, 이는 새로운 세대 당 약 60개의 새로운 돌연변이가 더해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전의 연구들은 모든 돌연변이 중 10%는 해롭고, 대부분의 돌연변이는 알아차릴만한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며, 이로운 돌연변이는 실질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음을 가리킨다.

돌연변이 전문가인 알렉세이 콘드라쇼프는 네이쳐지의 연구를 살펴보고 이러한 축적되는 돌연변이가 정신분열증이나 자폐증을 포함한 질병이 증가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데 동의했다. 추가적 연구들은 이러한 주장들을 확증한다.

명백히 인간의 DNA 서열의 질은 가차없이 떨어지고 있다. 콘드라쇼프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해로운 돌연변이가 이로운 것들보다 훨씬 더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느긋한 자연선택 하에서의 진화는 필연적으로 집단의 평균 적합성 (fitness)이 감소하도록 할 것이다." 한 집단의 "적합성"의 필연적 "감소"는 결코 "진화"(evolution)와 동일시될 수 없다!

각각의 새로운 DNA 의 복제 오류는 0으로 향해 가는 유전적 시계의 1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시계가 멈추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는 모두 알고 있다. 결국, 돌연변이로 인해 세포의 기관들은 필수적인 DNA서열을 읽을 수 없게 될 것이며, 창조주 외에는 그 누구도 이러한 피할 수 없는 유전적 감소를 되돌릴 수 없다.

이 과정은 지속 가능한 인간의 세대의 최대치를 정하게 된다. 각 세대 당 60개의 새로운 돌연변이가 생긴다면, 진화론이 이야기하는 12만 세대를 지나면, 인간의 유전체를 구성하는 30억 개의 염기 중에서 720만 개의 돌연변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 숫자는 인간의 유전체가 감내할 수 있는 수를 훨씬 초과한다. 기적적인 과정이나 돌연변이가 축적되는 것이 매우 오랫동안 멈췄었다고 가정하지 않는 한, 인간의 돌연변이 속도 하나만 보아도 진화론적 역사를 배제할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약 200세대라고 하는 성경적 추정치는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1만 2천개의 치명적이지 않은 돌연변이가 축적되도록 했을 것이다. 이는 질병이 증가하도록 하기에 충분하지만, 인류 전체가 멸종되게 하기에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돌연변이의 카운트다운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우리가 아직 끝에 도달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역사가 약 몇 천 년 전이라고 하는 최근에 시작되었기 때문임이 틀림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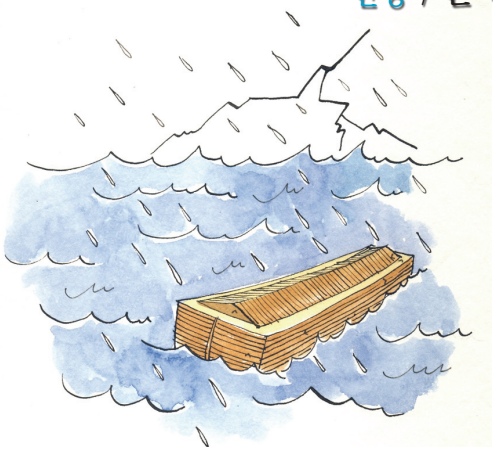
Brian Thomas, M.S. / 이충현 번역

Cite this article: Thomas, B. 2012. Human Mutation Clock Confirms Creation. Acts & Facts. 41 (11): 17.

창조과학탐사

간증 / 온누리교회 연합팀

8/4-12, 2016



저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여기 창조과학을 와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라는 것을 많이 알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릴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듣고 이해했습니다.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김재원 〈수원 온누리교회〉

모태신앙인데다 기독교학교를 다녀서 성경 이야기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다. 그러나 그렇게 오래 말씀에 오래 노출되었음에도 내 안에 자리잡은 진화론적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되었다. 그 뿐 아니라 세상의 관념과 철학에 깊이 물들어 있는 나도 보게 되었다. -김여진 〈수원 온누리교회〉

이번에 와서 창조과학을 배우면서 지금까지 학교에서 진화론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서 놀랐습니다. 이번 탐사를 하면서 성경에 대해 궁금해진 것도 많아져서 앞으로 성경을 많이 읽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예찬 <부천 온누리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니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투어는 이 지구상에 없을 것이다. 정말로 감사 드린다. – 금영민

성경을 내 맘대로 왜곡해서 잘못됐던 과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앞으로 성경을 알짐 알힉이라도 바꾸지 않고 제대로 알고 진리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신지선 <인천 온누리교회>

이번 창조과학 탐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창조의 궁금증이 아주 많이 풀려서 학교에 창조를 궁금해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를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병윤 <수원 온누리교회>

저의 머리속에는 "다음세대와 부모교육"이라는 단어로 가득차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목사로서 어떻게 하면 다음세대 아이들에게 복음을 잘 설명할까가 이슈였는데, "창탐"을 통해서 많은 것들에 대해 도전을 받았습니다.
-김정순 목사님

편집되지 않은 많은 간증은 Homepage(www.hisark.com)의 "ACT간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역일정

2016/2017 ACT Schedule

9/21-11/23	제 21기 중부창조과학학교(순복음시카고교회), 이동용
11/ 30	창조과학스터디그룹 (창조과학선교회), 노휘성
12/22-2/18	제 8 기 ITCM
1/2-5	창조과학탐사 (18차유학생창조과학탐사), 이재만
1/17-21	창조과학탐사 (군산드림교회), 이재만
2/21-27	창조과학탐사 (인천동춘교회), 이재만
3/27-30	창조과학탐사 (텍사스교회협의회), 이재만
3/30-4/7	창조과학탐사 (연합팀), 이재만
4/10-15	창조과학탐사 (명성교회), 이재만
4/16-22	창조과학탐사 (높은뜻푸른교회), 이재만
4/23-27	창조과학탐사 (하늘샘교회), 이재만
5/1-7	창조과학탐사 (기독교미래연구소1), 이재만
5/9-16	창조과학탐사 (서초충신교회), 이재만
5/18-24	창조과학탐사 (안산동산교회), 이재만
5/28-6/1	창조과학탐사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이재만
5/1-7	창조과학탐사 (기독교미래연구소1), 이재만
5/9-16	창조과학탐사 (서초충신교회), 이재만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 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ACT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창조과학선교회

창조과학선교회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P.O. Box 819, Norwalk, CA 90650
Office Address | 10529 Leeds St., Norwalk, CA 90650
Tel. 562-868-1697 www.HisArk.com / hisark@gmail.com